

# “예비 창업인들 여기 모여라~”

초창기 창업가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경진대회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업화에 나서기 전 자신의 창업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상할 경우 상금과 창업지원시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어 지역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수산 분야 창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지역 창업가나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수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창업경진대회다. 수산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아이템 발굴과 지원으로 수산업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화 부문 참가자격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개인·법인·단체 등)로, 아이디어 부문은 예비창업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산분야의 아이디어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한 창업아이템으로, 수산물, 수산식품, 양식,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수산업 기자재, 바이오, 6차산업 분야 등 분야도 다채롭다.

참가자들은 멘토링을 거친 사업계획서 발표와 평가 이후 사업화 부문 10팀과 아이디어 부문 10팀 선정에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 창업성공 CEO 토크콘서트, 홍보마케팅 기획, 비즈니스 쇼양 강의 등 창업과 관련한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된 합숙형 창업캠프를 진행한다. 최종결선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공개 오디션 방식의 발표심사 이후 사업화 부문 5팀과 아이디어 부문 5팀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화 부문 대상(1개)은 1000만원, 최우수상(2개) 500만원, 우수상(2개)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아이디어 부문은 대상(1개) 200만원, 최우수상(2개) 150만원, 우수상(2개)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결선 진출 20팀에겐 내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홈페이지 수상자 갤러리를 통한 콘테스트 기업홍보 등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의 070-7726-7402.



수산·ICT 창업경진대회  
입상시 상금·사업화 지원  
이번달 참가자모집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16일까지 '제5회 ICT 스마트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투자, 유통 등 제품의 사업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일반인, 중소기업 등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본선 진출 30팀은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시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제작과 멘토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은 글로벌 테드데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ICT디바이스업 제품화 지

원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전시 참가 기업 선정시 우대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디바이스 제작비 총 60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02-6248-3502-3.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창업 경진대회도 눈여겨볼 만하다.

당진시와 충남창조경제센터는 '2018 Thank U! 당진 전국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만 18-39세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로, 창업 아이디어나 작품, 제품 등 참가분야 제한 없이 공모를 받는다.

대상(1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최우수상(2명)은 당진시장상과 500만원, 우수상(2명)과 장려상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과 함께 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여기에 후속지원으로 해외창업생태계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아이디어는 크라우드펀딩 런칭 지원, 본선 진출팀 및 수상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 041-536-783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도 국내외 1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4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아이디어톤 경진대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오는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

1등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2등 대구시장상·한국가스공사 사장상에 상금 200만원, 3등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등이 주어지며 공기업 에너지 분야 설명회와 전문가 멘토링 등 후속지원도 연계한다. 대구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받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C-LAB 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창의형 인재와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내·외 이노베이터, ICT분야 전문가, 투자자,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는 점에서 입상할 경우 추후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입지서 밀리면 경쟁서 밀린다

불경기 창업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쁜 경기의 와중에 유사업종의 기존 자영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의 중심에 상권과 입지가 있고 그 중 입지선택의 결과는 경쟁구도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요즘은 창업아이템이나 음식의 맛이 상향 평준화된 경향이 강해서 단순히 아이템만의 경쟁력으로 경쟁을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입지에서 승부는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경쟁점포들과 같은 상권에 있어도 입지에서 밀리면 고객이나 매출에서도 밀리게 되어 고전하다가 결국 폐업의 선택지에 내몰리게 된다. 엄청난 마케팅 능력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비창업자라면 경쟁점포들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입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입지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입지가 좋기에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더 들어간다는 현실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예비창업자들은 유동인구의 동선을 중심으로 두고 최선 또는 차선의 입지를 확보해야 그나마 해볼 만한 경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일까? 입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창업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하자. 창업아이템은 크게 중심가형과 주거지역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가형은 고객 1인당 연간 이용횟수가 높지 않아서 광역에서 고객이 유입되어야 생존이 가능하여 반드시 도심중심지나 주택 밀집지역의 중심지나 역세권 등에서 창업을 해야 생존확률이 높은 업종을 말한다. 주거지역형은 고객 1인당 연간 이용횟수가 비교적 높은 업종들이라 작은 배후 상권으로도 유지가 되는 생활업종을 말한다.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상권 후보지들을 먼저 체크한 후 해당 상권에서 입지는 임대매물로 나온 점포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상권분석을 통해 자신의 조달 가능한 창업자금을 참고하여 최적의 점포를 선정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상권의 주 이용고객들의 조안을 들어보는 과정은 절대 필수요소다.

흔히 말하는 상권분석은 특정 상업지역의 분석과 해당 상권 내에서 입지의 경쟁력 분석을 통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좋은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상권에서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선택의 기준은 가시성, 고객의 접근성, 유동인구의 동선, 경쟁점포의 인접성, 주차 편의성, 임대료가 그 중심축을 이룬다. 이를 중심으로 분석되 특히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경쟁점포들과의 입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에서 밀려 폐업에 이르는 점포들을 아이템이 아닌 상권과 입지 측면에서 패인을 분석해보면 상권선택의 문제가 30% 정도라면 입지 선택의 문제는 70% 수준으로 높다.

입지에서 밀리면 무조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안전략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 입지에서 밀렸다면 매장의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제품, 메뉴, 서비스 등에서 고객이 피부로 느낄만한 차별화 요소의 장착이나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쟁의 특징은 창업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여파가 따른다. 결국 더 안정적인 창업방식은 입지선택에서 최선의 선택이 예비창업자를 특히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 아닐까 싶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전남대 학생들, '대학창업유망팀 경진대회' 8팀 선정

'2018 대학 창업유망팀300 경진대회'에서 전남대 소속 8팀이 최종 선발됐다.

대학 창업팀은 전남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력 향상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업동아리를 결성해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나서는 경우로, 전남대에는 현재 45개 팀이 결성돼 활동 중이다.

최근 열린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기획된 대회로, 전남대를 비롯해 각 대학의 창업 동아리들이 대거 참가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서와 제품설명 등으로 실력을 겨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전국 167개 대학에서 786개 팀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창업 경진대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소상공인진흥공단 11월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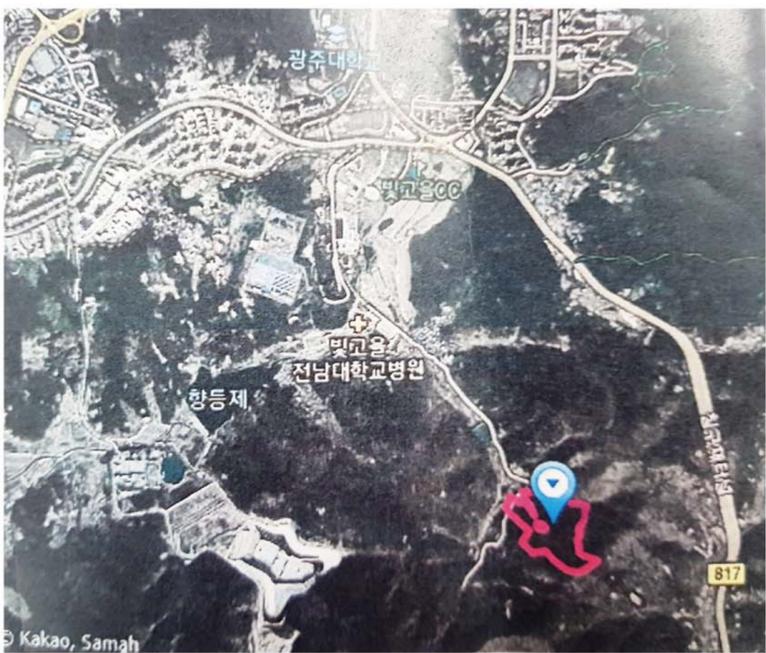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성공률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으로 용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된다. 성공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 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을 우대지원하고 고의 실패의 경우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30일 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호남권역에서는 500명을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전에 종료된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특색 홈페이지(http://idea.sbiz.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1357. /박기용 기자 pboxer@

#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